



## 자판기 위생, 언제까지 동네북 신세가 될 것인가?

지난 9월 1일, 가을의 문턱인 첫날부터 자판기 업계를 우울하게 하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MBC 9시 뉴스데스크에 자판기의 불결한 위생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뉴스는 아웃도어에 설치된 일부 커피자판기의 비위생적인 관리 상태, 세균오염 문제 등을 집중 보도했다. 이 뉴스를 보며 역시나 했던 것은 또 다시 일부 자판기의 위생문제를 전체의 문제인 양 보도했다는 점이다.

뉴스에 집중 점검대상이 된 것은 개인운영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아웃도어 자판기들이다. 이들 개인운영자들은 사실 자판기 운영의 전문성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장사가 되고 안되고에 따라 자판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 이들 개인운영자들은 오래된 중고자판기와 오버홀 자판기를 구입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 위생에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에 비해 전업으로 하는 다수의 자판기 전문운영자들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보통이다. 자신의 '밥그릇'이라 할 수 있는 자판기 운영에 있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강심장들은 거의 없다. 자판기 운영을 당연히 깨끗하게 하게 해야 고객인 모인다는 이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매스컴이나 정부관련 기관, 지자체의 자판기 위생검사는 항상 실적위주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들의 실적을 나타내려면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결과, 즉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결과치를 도출해 내야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반 자판기 세균문제를 집중 두드리고, 자판기 위생에 별 문제도 안되는 음용온도 위반 자판기를 집중 조사하기도 한다. 심지어 자판기에 대해 무지해 자판기 외부 표시온도와 실제 음용온도가 엄청 차이가 난다는 잘못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한다. 자판기 점검대상도 아웃도어 자판기들 중 개인운영자가 운영하는 로케이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실적을 위한 위생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매스컴은 고발성이 없이 미묘한 위생검사에 대해서는 보도

하지 않는다. '어느 지역 자판기를 위생 점검했더니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보도는 본적이 없다. 위생검사의 주체가 검사 결과의 목표치를 정하고 하는 조사는 당연히 매스컴과 절묘한 공생관계를 갖는다. 한쪽은 자신들의 실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좋고, 한쪽은 뉴스가치가 높아져서 좋다.

물론 자판기 위생이 불량한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할 사항이다. 하지만 매번 같은 식의 보도가 이루어져, 다수의 잘하고 있는 자판기 운영업체들이 피해를 입어야하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다. 한번 자판기 위생문제를 두드리고 나면 그 여파가 오래간다. 소비자들은 '아, 자판기 커피는 비위생적이구나'하는 인식으로 커피자판기 사용을 꺼린다.

결국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게 만드는 폐단을 낳는다. 1-2대 일부 잘못된 자판기 때문에 8-9대의 문제없는 자판기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커피자판기 위생에 대한 이러한 보도들이 연이어 되풀이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기뻛이나 어려운 자판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자판기 업계 종사자들이 양심불량으로 소비자에게 위생불량의 커피를 팔만큼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일부 문제를 전체를 호도하는 현재의 '고발을 위한 고발' 식의 매스컴 보도는 지양이 되어야 한다. 그 고발로 인해 산업계가 입는 피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아우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또 위생검사를 진행하는 정부관련 부처, 지자체들 역시 이제 실적위주의 검사자세를 버려야함을 당부하고 싶다. 왜 일부 문제 부분만 집중 조명을 해 보도자료를 내는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칭찬을 하면 어디가 덧나냐? 항상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아야 하는 자판기 산업계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자판기 산업계도 소비자의 위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자판기 위생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좀 알아 달라.